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5월 29일(금)

...(윤력 4월 13일)...

Пятница

29 мая 2026 г.

№ 21 (1218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5월 26일 사할린 학교들에서 '마지막 종소리' 졸업행사가 열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1 중학교.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어린이 여러분! 존경하는 부모님과 교육자 여러분!

6월 1일 어린이보호의 날은 학교의 즐거운 여름방학을 열어줍니다.

이날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어린이들에게는 새 학기를 앞두고 휴식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는 날이고, 어른들에게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동을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고,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며, 아동의 재능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할린주 정부는 이러한 방면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교육시설을 건설하고, 예술과 창작에 대해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모든 노력은 어린이들이 러시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양있는 인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다가오는 여름이 행복한 마음과 찬란한 추억과 놀라운 발견을 선사하길 기원하고, 또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인내와 교육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보호의 날을 축하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에 불법 쓰레기매립지, 드론 이용해 적발

사할린주 정부회의에서 불법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정보수집 결과를 논의한 가운데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불법 쓰레기더미를 적발해 처리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3월 말에 드론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이 지역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사할린 지역의 남부와 중부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이 완료되어 총 1,218 곳의 쓰레기 매립지가 적발되었다. 드론을 이용한 조사가 94% 이뤄졌고, 계속해서 북부 지역에서 정찰을 돌고 있는 가운데 발견된 쓰레기들은 모두 수거 및 처리 중에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주민들이 깨끗하고, 잘 관리된 마을에서 살아야 한다. 이는 생활의 기본 요구사항이자 우리가 보장해야 하는 의

무이다. 우리는 현대적 장비로 모든 불법 매립지를 적발할 수 있게 되어 이제 어느 지방자치체도 몰랐다는 핑계는 댈 수 없다. 드론을 이용해 정보를 기록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다. 몇몇 지방에서는 쓰레기 처리작업을 완료했는데 남은 지역들도 신속해 처리하길 당부한다. 깨끗한 사할린은 우리 주민들과 미래세대 위한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624곳의 불법쓰레기 더미들이 처리되었고, 코르사코브와 아나와 지자체가 이 쓰레기 처리작업을 완료했지만 우글레고르스크, 마카로브, 오하, 쿠릴스크지역에서는 아직 드론 정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 유즈노사할린스크 새 학교의 첫 졸업생들 격려

지난 5월 26일(화)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정부 총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5호 학교의 첫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다가오는 졸업시험을 잘 치르고, 대학 진학과 직장생활에서의 성공을 기원했다.

지난해 지식의 날 '고리존트(수평선)'주택 단지에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시 남부의 성장세에 발맞춰 사회적 편의시설을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제공하고, 매일 통학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목적으로 제 25호 안톤 체호브 학교를 설립했다.

3층 건물의 이 학교는 55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유치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분리하여 수업을 한다. 화학교실 생물교실, 물리교실에는 연구 및 실험활동을 위한 장비세트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철공 및 목공실습실, 가사실습실, 직물가공실, 체육관까지 있고, 창조산업을 연구하기 위한 추가 교육과정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창조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에는 디자인, 애니메이션, 영상블로그 제작, 연극, 언론, 신문 및 잡지, 로봇공학, 3D모델링, IT(정보통신) 및 무인기 공학 등이 포함돼 있다.

제 25호 학교의 첫 졸업생들이 이제 사회 성인이 되었다.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의 직업과 학업,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이 우리 향토에서 양질의 필요한 교육을 받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뱀체고르스크 지진 희생자 추모식 열려

지난 5월 28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기차역 광장에 위치한 뱀체고르스크 대지진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헌화식이 열렸다.

1995년 5월 28일 밤, 사할린섬 북부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최근 100년 동안 러시아에서 가장 파괴적어었던 지진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뱀체고르스크 마을은 순식간에 파괴되었으며, 전국의 구조대와 군인, 의료진이 구조에 나섰으나 2,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대주교 니카노르가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의식을 집전했다. 이어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총재를 비롯한 지역 정부 관계자, 연방 및 지방 자치단체 대표, 의원,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추모비에 헌화와 조화를 바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5월 30일, 주한인협회 회장 선거

5월 30일(토)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된다.

현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임기가 2026년 8월에 끝나지만 여러 이유로 선거를 앞당기기로 했다.

배움의 열정과 열린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강 엘비라

지난 5월 25일 '은하수'한글학교 종강발표회 진행을 맡았던 한국어반 강사 강 엘비라 블라디미로브나를 만나 인사를 나누며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1974년생인 강 엘비라는 사할린동포 2세 부모 슬하에 예쁜 딸로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났다. 70년대 당시 엘비라의 부모님은 그 도시 대학들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엘비라가 4살이 되자 가족이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엘비라 선생은 이르쿠츠크와 관계가 깊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이르쿠츠크 외국어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일영과에서 공부했는데 그녀를 가르치는 교수들 또한 외국어교육의 석학들로서 엘비라에게는 공부가 재미있었다고 한다.

199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엘비라는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경제가 무너진 90년대 여서 취직이 쉽지 않았다. 결국 딱히 마음에 드는 일을 찾지 못하고, 2년 후에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서 첫 반 년 동안은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연세대 어학당에서 초급(1급)을 공부하다가 서울대 어학당으로 옮겨 거기에서 1년 반을 공부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4급까지만 마쳤다. 그래도 언어를 전문으로 배운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익히기가 수월했다. 그래서 공장이 아니라 번역·통역원으로 취직해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2001년에 예비신랑을 만나 2003년에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결혼을 하고, 임신도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였고 한국에서 임신 유

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엘비라의 아들이 14개월이 되자 엘비라는 친척들의 부탁으로 사촌 형제들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나중에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인들의 부탁도 들어주게 되었다. 2009년에 사할린국립대 독일어과에서 영어를 가르친 일도 있었고, 한국과 교류를 하는 사할린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한국어 지식이 필요했다.

최근에 한동안 그녀는 주로 집에서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좋은 전문가로서 엘비라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 세 언어를 가르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가 많이 요구되어 교육과정을 끝낸 제자들, 또는 학부모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한다.

"작년 여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제자가 꽃다발 들고 찾아왔는데 제자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영어수업에서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라며 웃으면서 말하더라구요."라고 엘비라 선생이 말하였다.

'은하수'한글학교의 강사가 된 계기는 늘 일이 많아 일정이 팍팍한 중에 지난해 여름 잠깐 시간 여유가 생겨 그때 우연히 사할린한인연합회에서 한국어 선생을 찾고 있다



는 소식을 알게 되어 '혹시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고 했는데 연합회에서 요청하여 엘비라는 낮에만 가르칠 수 있어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 유경옥 교장이 '은하수'한글학교 강사로 초대했다.

그래서 작년 9월 말부터 '은하수'한글학교 기초반을 맡게 되었고, 찾아온 수강생들은 처음 기초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들이 1,5개월이 되었을 때 한글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는데 그 목표를 이루었다. 강 엘비라 선생은 4가지 한국어 교재를 섞어 자신이 직접 만든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수강생들의 발표회 준비도 열심히 했다. 엘비라의 그룹에는 7명 - 8명의 수강생들이었는데 그중 2명은 러시아인이다. 수강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엘비라 선생이 자랑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업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종강 발표회에서 러시아인 여자분이 '진달래 꽃'을 자신있게 낭송했고, 4명은 '툼바툼바'노래를 하기까지 그간 발표회를 위해 수업을 노래방에서 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 친척이나 친구들은 엘비라를 활발하고, 솔직하고, 믿음직하고 책임감 높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녀에게 두 마리 고양이와 있는데 첫 고양이는 17년째, 둘째는 6년째 반려묘로 함께 살고 있는 것만 봐도 품성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스트레칭교실을 다니고 그리고 5번 정도 '로지나'문화회관에서 뮤직댄스도 배우고 있다. 엘비라는 가르치는 일에만 열정을 쏟지 않고 여전히 배움에도 열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대표단, 중국 대련 '아카시아 개화' 경제포럼에 참가

사할린주 대표단이 중국 대련시에서 열린 '아카시아 개화' 경제포럼에 참가했다. 대표단에는 건설 및 의료 관광 분야를 포함한 지역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사할린주와 중국 요령성 간의 경제 및 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정 중 양측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러·중 우호·평화·사할린주 발전위원회 대사 겸 기업인 권익보호 전권대표인 안드레이 코알렌코와 라오닝성 하이룽장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자 지부 서기 및 삼임위원장 쑨창위가 참석하여 사할린 생산품의 중국 시장 진출 확보를 위한 협력이 체결되었다.

양측이 체결한 새로운 협약은 상호협력 및 이익을 원칙으로 사업 정보교환, 공동 전시회 개최, 협력 기업 발굴 및 지원, 브랜드 홍보, 특별비즈니스 행사 개최, 그리고 무역·문화·관광·보건·건설자재 분야를 아우르는 국경 간 협력기관 설립 등 6개 주요 분야에서 추진한다.

방문 기간 동안 중국 측은 대련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소개하며, 사할린주와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사할린 대표단은 현지 창문과 문 제조공장, 건설자재 공장, 의료 관광과 연관된 의료기관들을 방문했다.

안드레이 코알렌코 대표는 "고위급 소통 플랫폼 구축은 정부와 기업 간 효과적 협력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이번 다롄 방문을 통해 장기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국제협력 부서의 지원 덕분에 보건의료, 건설자재, 수산물 분야의 실질적인 기획들을 자세히 둘러볼 수 있었다."며 "이러한 실무 협력은 향후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협력과 더불어 문화 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련시 정부는 내년 포럼에 사할린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한 가운데 내년에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사할린 지역 예술단도 초청하여 대규모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련의 포럼은 매년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 교류 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모저모 사할린주, 연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들 순위에 올라

사할린주가 연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들 순위에 올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에 사할린 주민의 월평균 연금은 33,700루블리에 달했다.

러시아에서 월평균 연금이 3만 루블리가 넘는 곳은 12개 지역으로 사할린을 비롯해 다음 지역들이 상위에 올랐다.

추코트카(42,200루블리), 네네츠크 자치구(38,800루블리), 캄차트카 변경(37,500루블리), 마가단주(37,400루블리),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37,000루블리),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36,400루블리), 무르만스크주(34,200루블리), 야쿠치아(33,700루블리), 코미공화국(32,200루블리), 아르한겔스크주(31,700루블리), 카렐리아(31,000루블리)이다.

2026년 4월 기준 전 러시아 월평균 연금은 25,397루블리라고 사회연금재단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пала в список регионов с самой высокой пенсией

В числе регионов с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пенс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оказалась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данным, в апреле 2026 года средний размер пенсии на островах достиг 33,7 тысячи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ТАСС.

Всего же в России 12 субъектов, где средняя пенсия превышает отметку в 3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этот список, помим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шли: Чукотка (42,2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38,8 тысячи рублей),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37,5 тысячи рублей),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37,4 тысячи рублей),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37 тысяч рублей),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36,4 тысячи рублей), 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ь (34,2 тысячи рублей); Якутия (33,7 тысячи рублей), Республика Коми (32,2 тысячи рублей), Архангельская область (31,7 тысячи рублей), Карелия (31 тысяча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него размера пенсии в апреле 2026 года составил 25 397 рублей. Информацию предоставил Соцфонд.

사할린, <용기의 상자>연례 자선행사 시작

중병에 걸린 아동들이 질병치료의 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할린 지역 주민들이 도울 수 있다. 통합 러시아당이 세계 아동보호의 날에 맞추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사할린주에서 <용기의 상자> 전통적인 전 러시아 자선행사를 개최한다고 사할린주 사회복지부가 전했다.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장기간 질병치료와 병동에서 복잡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고 있는 어린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종종 아동과 청소년들이 집과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특히 이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과 긍정적인 정서가 필요하다. <용기의 상자> 행사는 간단하다. 공공장소에 특별한 상자를 설치하고, 누구나 그 상자 안에 크지 않은, 어린 환자들을 배려한 선물을 넣을 수 있다. 아동들은 몹시 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치료 절차(주사, 정맥주사, 붕대 교체 등)를 받은 후에야 이들에게 용기의 상자에서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꺼낼 권리가 주어진다.

아동들의 용기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 앞에서 아동의 아픔을 완화시키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며, 자신의 기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용기의 상자에 넣을 수 있는 물품들은 새 장난감과 피규어, 문구류(사인펜, 연필, 노트), 동화책과 색칠공부책, 교육용 보드게임, 수공예 세트 등이다.

용기의 상자 물품 수집은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7월 6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집된 모든 물품을 지역 의료기관의 소아과 병동에 전달할 계획이다.

관심을 가진 사할린 주민들은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용기의 상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주 사회복지부(카를라 막스 거리, 24번지. 1층 로비에서)'와 '사할린주 사회지원센터(포그라니츠나야 거리, 33번지. 1층 로비에서)', '통합 러시아당 사회지원본부(체르퀸스카야 거리, 40번지/1)'에 설치된다.

소아과 병동의 아동들은 면역력이 아주 약하므로 기증하는 선물에 대한 위생수칙이 대단히 엄격하다. 모든 기증되는 장난감은 신제품이어야 하고, 생상품 포장(먼지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봉제인형은 받지 않는다)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깨지기 쉬운 것이나 유리제품, 날카로운 물건은 금지된다. 주최 측은 국내산 제품을 기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ует ежегодн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Коробка храбрости»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помочь тяжело-больным детям преодолеть страх перед болезненны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процедурами.

С 1 июня по 1 июля 2026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ет традиционн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Коробка храбро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енное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защиты детей, организуют сторонники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Главная цель этой инициативы —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вынуждены месяцами находиться на длительном лечении и слож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в больничных стационарах. Зачастую малыши и подростки проходят терапию вдали от дома и родных, из-за чего особенно остро нуждаются во внимании, заботе и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ях. Суть «Коробки храбрости» проста: специальные боксы устанавливают в людных местах, и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положить туда небольшой подарок.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неприятной или болезне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цедуры (будь то укол, капельница или перевязка) ребенок имеет право вытащить из коробки любую понравившуюся игрушку. Эта заслуженная награда за смелость помогает детям отвлечься от боли, победить страх перед белыми халатами и дарит заряд уверенности в собственных силах.

В рамках акции принимают:

Небольшие новые игрушки и фигурки;

Канцелярски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фломастеры, карандаши, блокноты);

Детские книжки и красочные раскраски;

Развивающие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и творческие наборы.

(8면에 계속)

'은하수' 한글학교, 2025-2026학년도 종강 발표회 열어

지난 5월 25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능동적 교육'센터에서 '은하수' 한글학교(교장 유경옥)가 2025-2026학년도 종강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유경옥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참여해 준 수강생들과 강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한국어 배움의 여정을 계속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국장현 소장은 축사를 통해 수강생들의 성공적인 학기 마무리를 축하하며, 아울러 사할린 한인들의 민족 정체성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 공연에서 수강생들은 그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을 발휘하고, 한민족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수강생들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비롯해 다양한 시를 한국어로 낭송했으며, '툼바툼바', '돌아와요 부산항에', '코스모스' 등의 노래를 불렀다. 또한 수강생들이 직접 준비한 단막극 <시장에서>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은하수' 한글학교 소속 '사랑' 무용팀의 다채로운 전통춤 공연도 펼쳐졌다.

또한 수강생들은 이 학교 김경순 부교장이 직접 작사한 '눈물의 섬 사할린'을 함께 불렀다.

“사할린으로 끌려왔어요. 조선 땅에서 그 옛날. 일본놈들의 시달림 받고 늘 괴로



움에 떨었죠. 가고픈 고향 한국 땅으로, 부모 형제 사는 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리워라 내 고향.”

한인 동포 2세인 김경순 부교장이 부모세대의 한과 그리움을 담아 쓴 이 노래의 가사는 행사 참가자들의 마음에도 와닿았다.

이외에도 초청 가수 위탈리 치렌가르마예브가 부랴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축하 무대를 꾸며 좋은 반응을 얻

었다. 이날 수료식은 학교 측이 정성껏 준비한 다과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지난 2025년 1월에 개교한 '은하수' 한글학교는 현재 사할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글학교 중 하나다. 현재 초급반(2개), 중급반(2개), 무용반 등 총 5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담당하는 김종길, 이재인, 강 엘비라 강사와 무용을 담당하는 유경옥 강사가 약 60여 명의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씨름 대표팀, 중국 연변 국제초청대회에서 메달 6개 따내

사할린주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 소속 대표팀이 중국 연변에서 열린 국제 씨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귀국했다.

사할린주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에 따르면, 단장 박 드미트리 감독을 비롯해 총 7명의 선수로 구성된 대표팀은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연변에서 개최된 2026년 전 국 민족식 씨름 초청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휩쓸었다.

대회 결과, 벨로브 니키타, 곤차로브 드미트리, 박 막심 선수가 탁월한 기량으로 상대들을 제압하며 각각 영예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로모보 플라톤과 페시코브 씨무르 선수가 은메달을, 코네카와 알렉산드르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여러 나라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주씨름협회 제공)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 개월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용 문

관리번호	952695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용문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미상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

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 용군사의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의회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

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 김용문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관련문의

(편집 이철수)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발 갈던 아씨야 / 강태수

발 갈던 아씨야!

이 가없는 벌판에

땅거미 살며시 기여들어

모드를 거무스름 물들일즈음

나는 차장에 목을 내밀고

네가 갈던 밭과

내가 프라포르(트랙터)에서 내려

기꺼이 걸어가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구지여라

내가 이렇게 차창가에 기대여

속 타는 그리움에 시달리는 중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너는 아마 잠 이루지 못하고

비인 머리맡에 눈을 던지면서

말 못하는 베게나 못살게 구느냐?

너는 문을 열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에겐

따로 문이 없다

(...중략, 1938)

“귀한 시를

소개할 수 있

어 다행입니다.

1938년 강태수

시인이 강제 이

주 열차에서 창

작한 시입니다.

지금의 맞춤법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여럿 보이지만, 언어

를 감히 틀렸노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듯, 저는 그대로 그 언어의 맛을 되짚어

보며 음미하는 중입니다. 언어는 결국 생

각이며, 그 생각이란 철학을 얘기할 수도

일상을 논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사실

은 이렇듯 한 개인의 사색을 담은 시가 언

젠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귀중한 시선으

로 되살아날 수 있음에, 새삼 시인의 노고

와 시의 위대함에 고개 숙일 따름입니다.

고려사범대학 조선어문학과 출신의

엘리트. 서정시임에도 단어 또는 낱귀절

하나 만으로도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었

던 비극의 시대에, 시인은 왜 이렇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짓고 남기려했

을까요? 그것도 흔들리는 너무나 막연한

열차 안에서 말이죠. 어딘가로 향한다기

보다 그 소중했던 보금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눈물의 기차안. 자갈이 튀

어 쏘고, 엇가락처럼 달구졌다가 금새 식

어버리는 기차길의 췌내 심한 소음이 꺾

가에 들리는 것만 같아 멀미가 나는 기

분입니다.

시간은 흘러 흘러 거의 1백년 가까이

지났습니단만, 이 시는 그 길고 긴 시간동

안 휘발되지 않고, 버티고 버텨 결국 살아

숨쉬며 이렇듯 제 눈 앞을 서성입니다. 저

는 기적을 믿어요, 언젠가부터. 감히 사할

린 1세대 어르신들의 '한'을 제 어찌 알 수

있겠으랴만, 그 어르신들이 기적처럼 일

군 사할린 사회 속의 성공한 사할린 한인

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옳게 살고, 맑은 눈

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생'이란 단어

조차 아까울만큼 뼈가 빠져라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곧 6월을 맞아, 그 분들의 귀한

노고와 희생에 고개 숙여 인사올립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школе «Ынхасу» торжественно завершили учебный год

25 мая в учебном центре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ошл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окончанию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Школ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Ынхасу» (Млечный путь). Директор школы Ю Кён Ок (Ольга Юрьевна) и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ук Чан Хён поблагодари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лушателей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участников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аранг» за терпение, любовь к языку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а также за прил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учёбе.

В этот день слушатели курсов читали стихи и пели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азыгрывали сценки и танцевали корейские танцы. Затем состоялось вкусное чаепити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тёплой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Сборная Сахалина по ссирым завоевала 6 медале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нире в Китае

Сборная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ссирым успешно вернулась домо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отли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в Енбене.

По сообщ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ссирым Алексея Чуна,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из 7 спортсмено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ренера Дмитрия Пак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о Всеазиатском турнире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2026 года,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Енбене с 13 по 18 мая, и завоева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6 медалей.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Никита Белов, Дмитрий Гончаров и Максим Пак уверенно одолели своих соперников и завоевали золотые медали.

Серебряные награды в копилку сборной в упорной борьбе принесли Платон Громов и Тимур Пешков. Обладателем бронзовой медали стал Александр Конкава.

Этот турнир позволил спортсменам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обменяться опытом и укрепить дружеские связи через ссирым —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вид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ие борцы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дтвердили сво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ей ссирым)

Корея, которую мы помнили, сами того не замечая

23 м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КРК, 대한고려인협회)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офсоюза КТ Телеком организовала поездку для семей корё-сарам в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ую деревню (한국민속촌).

В поездке участвовали 67 семей из Ансана, Хвасона, Ансона и Чхонана — около 160 человек, среди них 88 детей младшего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Такие поездки часто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просто как дет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или семейный отдых. Но в случае с корё-сарам всё оказывается немного глубже. Потому что иногда 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го запаха, одного вкуса или случайной детали, чтобы человек вдруг почувствовал: это ему знакомо.

Уже в первые часы многие взрослые ловили себя на странном ощущении. Традиционные дома, старые дворы, лавки с уличной едой, народ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 всё это почему-то не казалось чужим. Кто-то вспоминал детство у бабушки, кто-то старые семейные праздники, кто-то атмосферу домов, в которых жили старшие поколения корё-сарам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азахстане ил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верное, это и есть одна из особенностей нашей диаспоры.

Корё-сарам почти 160 лет живут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За это время изменилось многое: язык, среда,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Но часть культуры продолжала сохраняться внутри семьи — не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е учебники, а через кухню, привычки, семейные слова, отношение к старшим, домашнюю атмосферу.

Иногда человек может плохо говорить по-корейски, но при этом с детства помнить вкус, жесты или бытовые вещи, которые неожиданно оказываются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Именно это особенно почувствовалось во время мастер-класса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ёта (엿).

Среди корё-сарам эту сладость давно называют «ёси». Почти у каждого взрослого участника с этим словом были связаны собствен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Кто-то рассказывал, как ёси тянули руками всей семьёй. Кто-то вспоминал, как бабушки готовили его дома. А кто-то впервые задумался о том, что всё это время в их семье сохранялась часть стар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Для детей это тоже был важный момент. Многие

впервые увидели, что «ёси», о котором рассказывали дома, существует не только в памят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о и в самой Корее.

И, возможно, именно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особенно ясно понимаешь одну важную вещь: связь корё-сарам с Кореей никогда полностью не прерывалась. Просто она сохранялась не всегда в очевидных формах.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дет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смотрели народ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гуляли по территории деревни и посещали аттракционы. Для многих семей это стало редк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вместе вне работы, школ и повседневной суеты.

Для профсоюза КТ Телеком это уже не первая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корё-сарам. Профсоюз финансируе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ект «랜선한글학교»,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дети корё-сарам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заниматься на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ах с сопровождением наставников. Ранее ко Дню детей участникам программы также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подарки. В АКРК отмечают, что организация нынешней поездки стала продолжением этой системной заботы о детях и семьях корё-сарам.

Президент АКРК Тен Жанна отметила: «Наши дети часто воспринимают Корею через школу, экзамены и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адаптации. Но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у них появлялось и другое чувство — ощущение эмоциональной близости с этой страной, понимание того, что история корё-сарам тоже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профсоюзе КТ Телеком, поддержавшем программу,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подобные инициативы помогают детям миграцион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увереннее и создают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нормального человеческого общения между семьями, детьми и обществом.

В Ассоциации отмечают, что интерес к таким семейным программам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И, возможно, причина не только в экскурсиях или детском досуге. Всё больше семей корё-сарам ищут возможность не просто жить в Корее, а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 ней живую человеческую связь через простые и понятные вещи.

(Пресс-релиз АКРК)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к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о легендарном разведчике,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 18, 19, 20)

Редкий случай: одновременно учился на двух факультетах — очном и заочном. И оба окончил в 1960 году отличником.

Ким не служил в армии. После учебы прошел военные сборы. Официальная военно-учетн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 командир взвода мотопехоты.

Предложение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аспирантуру восточного факультета «как проявившего склонность и способности к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виделось логичным продолжением мечты о научной карьере. Но...

Читающий эту книгу о разведке уже догадывается, что последовало за этим «но». Может, парня заметили еще в 1957 году в штаб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 в Москве, где он впервые публич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навыки работы с языком и с иностранцами? Там и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Примаковым, который, уверен, как и Ким, не помышлял о разведке. Отношения с Евгением Максимовичем, будущим первым директором СВР поддерживал до последних дней: и когда академик руководил разведкой, и потом, когда работал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ремьером.

Выпускник ЛГУ свободно владел корейским и японским языками. Знал в определенных пределах становившийся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м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Говорил и на испанском. Некоторая неувязка: зачем востоковеду этот язык? Неужели при тяжелейшем своем учебном графике — учился на двух факультетах — вдруг решил взяться за язык Сервантеса? Или подсказали?

Как бы то ни было, в 1960 году Кима пригласили в разведку, причем нелегальную. Что заставляет верить в предположение о его более ранних связях с КГБ. Прежде чем сделать предположение, кандидатов в нелегалы изучают по два-три года. Или заметили Ким Ен Черу еще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Но официально разговор о разведке завели с ним незадолго до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ГБ сразу заговорил об «особом резерве» — не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е. Согласие Ким дал сразу.

Интенсивная учеба по 12, а то и по 14 часов в день один на один с «тренером» продолжалась три года. Обычно и этого бывает мало. Но не в случае с Ким Ен Чером. Рискну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удалось «сэкономить» на сложнейшем восточном языке,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и естественным путем освоенным в детстве.

Сам Ким пишет об этом так: «В то время моя мать еще была в далекой глубинке.

И с тех пор, как пять лет назад я уехал учиться в другой город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я не мог вернуться. И это вполне естественно,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ехать туда. А мать чуть ли не каждый день выходила на улицу, потому что наш дом находился именно на маршруте самолета к аэропорту. И вот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самолет гудит, она выходит и смотрит на него: «Может быть, сын там едет?» И так все время. Окружение мне ее так рассказывало. И мне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хоть раз в жизни слетать туда, доброе дело сделать для матери. А денег на билеты взять не откуда. В то время на самолете путь туда был очень далекий. Но мне обещали: «Поскольку вы уже будете работать у нас, вот вам подъемные на билет туда и обратно». Это по закону так положено. Они мне обещали, и я согласился пойти на предложенную мне работу. Не прошло и пятнадцати дней, и я встретился с матерью, и мы оба были счастливы. Но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телеграмма: «Срочно явиться в Москву!»».

Вот как об этом пишется в официально рассекреченном документе: «Занимался освоением новых для себя профессий по прикрытию, изучал различные спецдисциплины и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Прошел подготовку по страноведению, приобрел навыки в области оперативной психологии, конспи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есьма интересной была дисциплина, касающаяся организации связи. Он освоил радиоаппаратуру, научился приему и передаче радиосообщений, пользованию аппаратурой ближней связи, проведению тайниковых операций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игнализации, работу с шифрами. Тренировался выявлять наружное наблюдени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 этом Е. И. Ким уделял спорту, занимался борьбой самбо, лыжами и плаванием». Набор — полный!

Неожиданным, повторюсь,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лишь язык, усердно изучаемый в тот период, — испанский. Для его полног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Ким Ен Чер два года прожил в стране, где этот язык был основным. Выскажу предположение: легенда, по которой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едстояло жить нелегалу, был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епростой. Она предполагала, что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Ким проработает три, ну четыре года и вернется домой к жене, только родившемуся сыну и в род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аф.; вып. 2003).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ять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й обеспечили почти половину экспорта РК

На долю пяти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й РК, включая Samsung Electronics и SK Hynix, пришлось 43,5% от общего объём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Об этом 24 мая сообщило Национ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данными. Совокупный экспорт пятёрки лидеров за январь–март составил 95 млрд долларов — на 14,8%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Общий объём экспорта страны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достиг 219,9 млрд долларов. При этом прирост экспорта пяти 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ил 50 млрд долларов, или 82,8% от общего роста экспорт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страны.

Буддийские храмы откроются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BTS

Буддийские храмы в Пусане и окрестностях откроют свои двери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BTS в дни концертов группы — 12 и 13 июня.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а группа куль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корейского буддизма в связи с резким ростом цен на проживание в городе. В программе участвуют восемь храмо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Помоса, Нэвончжонса, Хонпоса и Сонамса — в Пусане; Сончжуса и Тэгванса — в Чханвоне; Тондоса — в Янсане; Пхёчхунса — в Миряне. Все они предоставят бесплатное или бюджетное размещение в период концертов группы BTS. В ряде храмов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итание, знакомство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буддийскими практиками, 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 услуги переводчиков. Посетители должны будут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храма: установленное время заселения и выселения, а также нормы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Концерты BTS в Пусане — крупное культурное событие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Мы надеемся поделиться духом щедрости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м буддизма, чтобы у гостей остались тёп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Пусане»,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 РК создадут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борьбе с нелегальным контентом в сети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ан Хун Сик 25 мая на совещании со старш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призвал к комплексным мерам по борьбе с нелегальными спортивными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ями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материалов сексуаль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 сети. Отметив, что в 2024 году число сообщений о незаконных спортивных азартных играх превысило 20 тысяч, а более 70% запрещённого контента по-прежнему доступны в обход блокировок, он поручил создать рабочую группу (TF) с участием секретариатов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и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и вопросам ИИ. Группе предписано представить доклад с конкретными мерами реагирования. Кроме того, Кан Хун Сик упомянул о гибели от теплового удара 15 мая — первом столь раннем случае в истории — и в связи с прогнозами аномальной жары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Эль-Ниньо распорядился обеспечить к ней всестороннюю готовность.

Жители Сеула и Пусана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Чон Вон О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хотят видеть на посту мэра Сеула 45%, а О Сэ Хуна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 34% жителей столицы, которые придут 3 июня на местные выборы.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с 16 по 20 мая агентством Korea Research по заказу телерадиовеща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KBS. Аналогичная ситуация складывается и в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страны. На выборах мэра Пусана за Чон Чжэ Су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готовы проголосовать 45%, а за Пак Хён Чжуна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 34% избирателей. На выборах мэра города Тэгу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Ким Бу Гёма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40%, а Чху Гён Хо от оппозиции - 39% избирателей. Опрос проводился по телефону среди жителей городов Сеула, Пусана, Тэгу, а такж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5%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рост рождаемости

Как сообщили 27 ма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ыми, в март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РК родилось 25.200 детей, что на 19,4%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Число новорождённых растёт 21 месяц подряд, начиная с июля 2024 года. Суммар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то есть, среднее число рождений на одну женщину в течение её жизни, составил 0,95.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за семь лет, начиная с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2019 года. В марте было заключено 21.100 браков, что на 10%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Поскольку число заключаемых браков— опережающий индикатор рождаемости —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эксперты рассчитывают на сохранение положительной динамик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RRK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клуб впервые выиграл Лигу чемпионов Азии по женскому футболу

Женский футбольный клуб "Нэгохян" ("Моя Родина") из КНДР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женской Лиги чемпионов Азии, обыграв в финале японский "Токио Верди Белецца" со счетом 1:0. Решающий матч прошел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Сувоне, а победный мяч забила капита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команды Ким Гён Ён, признанная также самым ценным игроком турнира.

Финал женской Лиги чемпионов Азии (AWCL) состоялся 23 мая на стадионе в Суво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гол был забит на 44-й минуте встречи. После прохода Чон Гым по левому флангу и передачи в центр капитан "Нэгохян" Ким Гён Ён точно пробила в угол ворот японского клуб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команда из Токио больше владела мячом и активно прессинговала в начале встреч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клуб сумел выстроить плотную оборону и сделал ставку на быстрые контратаки. Именно такая тактика принесла успех. Во втором тайме "Нэгохян" сохранил минималь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а японская команда так и не смогла вскрыть оборону соперника.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луба эта победа стала исто-

рической. Команда из КНДР впервые выиграла главный клубный турнир Азии среди женщин. Кроме титула, "Нэгохян" получил призовые в размере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еще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групповом этапе турнир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клуб потерпел от "Токио Верди" крупное поражение со счетом 0:4. Однако в финале команда сумела взять реванш.

На пути к титулу "Нэгохян" также обыгр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луб "Сувон FC Women" в полуфинале со счетом 2:1. Тогда победный гол также забила Ким Гён Ён.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отдельно отметили символичность участия команды из КНДР в турнире, проходивш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футболисты прибыли на Юг впервые за 12 лет - с момента Азиатских игр 2014 года в Инчхоне. При этом это был первый случай, когда Южную Корею посетил женский клубный футбо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из КНДР, а не национальная сборна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40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каждому: Samsung Electronics избежала забастовки в обмен на гигантские бонусы сотрудникам

Вечером 20 мая руководство Samsung Electronics и профсоюзы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смогли договориться об условиях новой системы премирования сотрудников,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всеобщей забастовки, которая могла стать крупнейшей трудовой акцией в истории компа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ранее предупреждали о возможном ущербе дл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отрасли и глобальны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соглашени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вечером 20 мая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при посредничестве министра труда РК Ким Ён Хуна, который лично в качестве посредника вел переговоры. Теперь документ должен быть утвержден голосованием членов профсоюза,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с 22 по 27 мая. Запланированная на 21 мая всеобщая забастовка пока отложена.

Согласно достигнуты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Samsung Electronics сохранит действующую систему бонусов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ведет специальную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емию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На выплаты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лять 10,5 процента согласован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бизнеса подразде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называют условия соглашения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и по масштабам выплат. По расчетам местных изданий, сотрудники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амят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ремии объемом до 6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около 40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на человека с учетом всех видов бонусов. Даже сотрудники убыточ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получат не менее 160 миллионов вон (около 106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выплат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а акциями Samsung Electronics, причем часть бумаг нельзя будет продать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двух л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повышении

зарплат в среднем на 6,2 процента. Также компания согласилась увеличить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сотрудникам, включая пособия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Переговоры проходили на фоне резкого роста доходов Samsung Electronics благодаря мировому бум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спросу на высокопроизводительную память для AI-серверов. Именно подразделение памяти сейчас считается гла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прибыли компании. Парадоксально, но именно большой успех чипов Samsung Electronics и необычно высокие прибыли и стали источником конфликта, точнее вопрос о том, как такие деньги надо дели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ситуация с Samsung вызвала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из-за огромного значения корпорации дл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При этом сложно было сказать, кто не прав: у каждой из сторон была "своя правда", но стороны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один на один найти компромисс.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осле увещеваний напрямую вмешалос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усадив после провала "последн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руководство компании и профсоюзы и де-факто пригрозив задействовать механизм экстрен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ластей с принуждением к решению. Похоже, что это в итоге сыграло свою роль, предотвратив забастовку.

Южная Корея вздохнула с облегчением после известия о соглашении: забастовка крупнейшей компании стран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дарила бы по всем - по экономике в целом, по стабильности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 по имиджу производителя, по авторитету властей, руководства корпорации. Много споров и мало сочувствия вызвали у сторонних наблюдателей призывы профсоюзов к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согласованные бонус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игантские, о которых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не может даже и мечта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Бах по столу": Как рекламный просчет Starbucks вызвал национальный гн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Одна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ировых сетей кофеен неожиданно оказалась в центре гром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кандала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тив Starbucks Korea нача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кампания бойкота, к которой уже подключились госслужащие, профсоюзы, органы в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банк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стые граждане. Причиной стало реклам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мпан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Tank Day", проведенное 18 мая - в день годовщины восстания в Кванджу 1980 года, которое в Южной Корее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символов борьбы за демократию. Причем волна негодования со временем не утихает, а наоборот растет, несмотря на дважды уже озвученные публичные извинения компании.

Возмущение вызвал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Tank Day" вместе с фразой "бах по столу". По замыслу, это была реклама тамблеров для кофе и

фирменных крупных кружек кофейни, объединенных в одну серию Tank. Это слово на английском означает не тольк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бронированную машину, но и крупную емкость, цистерну. Именно во втором значении оно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в плакатах. А "бах по столу" означало, что человек купил крупную фирменную кружку кофейни, с громким звуком поставил ее на стол и гордится своим приобретением.

Однако у корейцев возникли совершенно иные ассоциации, нежели те, на которые рассчитывали "креативщики" из рекламного отдела. Учитывая, что это все - и "танк" и "бах по столу" - было вместе в одном постере и именно в 46-ю годовщину восстания в Кванджу, то параллели возникли именно с бронетехникой, в частности, с танками, которые были введены в город для подавления волнени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апутствовал первых выпускников новой школ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обратился со словами напутствия к первым выпускникам школы №25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 пожелал молодым людям успехов на предстоящих экзаменах, во время учебы в вузах и в профессии.

Новое учрежд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 школа №25 имени Антона Чехова — открылось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изон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День знаний. Оно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Цель — обеспечить социальными объектами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растущую южную часть города, избавить школьников от хлопотных ежедневных поездок на занятия. Школа на 550 мест размещается в просторном трехэтажном здании. Вчерашние детсадовцы и остальные ученики занимаются раздельно. Кабинеты химии, биологии, физики поражают богатым набором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лабораторных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Также в здании есть слесарные и столярные мастерские, кабинеты домоводства и обработки ткани, два спортивных зал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изучение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Это дизайн, анимация, видеоблогинг, театр и медиа, журналистика, робототехника, 3D-моделирование, IT- и беспило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Учебный год позади. Пришло время первым выпускникам школы № 25 выходить во взрослую жизнь.

- Вам предстоит выбрать будущую профессию и место учебы, работы.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ое ре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делает все, чтобы вы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востребова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мы возводи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Уже построен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растет прекрасное здание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Кампус займе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для региона. Его выпускники будут занимать перспектив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а самых передов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Островной 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л опорным вузом «Газпрома». Мы открываем филиалы ведущ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траны. Уверен, вы воспользуетесь эт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реализуете свои таланты и способности. Добьетесь успеха в профессии на благо своих сем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ы!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ысказала мнение, что получ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прекрасный жизненный старт для молодых людей.

- Мы имеем возможность устраивать выпускников наших вузов н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местных компаниях. Региональная система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х семей,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и жилищные программы, считается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о большой плюс в пользу решения учиться и работ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ыпускник Тимофей Зрядний выбор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уже сделал.

- Я планирую быть специалистом в нефтегазовой сфере, пойти как раз в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Я останусь на Сахалине, хочу работать в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 поделился Тимофей.

Его одноклассница Юлия Склярова высоко оценила качество подготовки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предмет, потому что наша классная руководительница все очень хорошо объясняет.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профессии, я собираюсь стать спортивным тренером, - рассказала Юлия.

В этот день более 300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ощаются со школой. Уже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для них стартует сдача еди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экзаменов. Завершится пора ЕГЭ 20 июня.

1218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обнаруж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и помощ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Итоги мониторинга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мест размещения отходов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абота по выявлению и ликвидации стихийных свалок в этом году началась раньше обычного.

Облеты территорий стартовали уже в конце марта. Специалисты используют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ониторинг завершен в южных и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а. Всего выявлено 1218 скоплений отходов. Территория обследована на 94 %. Сейчас дроны работают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Весь обнаруженный мусор сразу убирают.

— Люди должны жить в чистых и ухож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Это базовая потребность, и мы обязаны ее обеспечить.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даю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обнаружить каждую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ую свалку. Теперь ни один муниципалитет не сможет сказать, что не знал о проблеме. Беспилотники летают, фиксируют, а мы контролируем исполнение. Некоторые районы уже полностью справились с задачей. Остальным нужно подтягиваться. Чистые острова — это наша общ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еред

жителями и перед будущими поколениям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регионе ликвидировали 624 свалки. Полностью справились с задачей дв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Корсаковский, Анивский. Близки к завершению рабо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Невельске. В числе отстающих Углегорск, Томари и Макаров. В Охинском и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к облетам территории еще не приступ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 2026» состоится в июл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в стране по применению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народном хозяйстве. Своим опытом с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ми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ахалин будет делиться 3-4 июл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О подготовке к масштабному событию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ТАСС.

Столицей форума закономерно ста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регион, где действует более 70 сценариев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ся первый в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ый дронопорт —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где и пройдет фору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также первым регионом страны с открытым «цифровым» небом. С 1 марта 2026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нач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единой системы идентификации авиабеспилотников на базе «ЭРА-ГЛОНАСС».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впервые выполнил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перелет беспилотного воздушного судна с Сахалина в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На форум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и другие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в работе этой системы.

— Время не стоит на месте, и наш форум готов отвечать на новые вызовы. Все беспилотн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ерешли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и выполняют задачи на благ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формировался альянс ведуще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России — компании ZALA — и эксплуатанта —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и ее беспилотного крыла «Аврора — БАС». Имеются большие совместные планы в интересах жителей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амчатке, стартуют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т опыт и другие экономически эффективные сценарии применения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форуме,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Благодаря использованию дронов площадь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на островах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сократилась в 40 раз, а паводковый сезон проходит штатно.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иков также ищут заблудившихся людей, доставляют медикаменты, определяют стихийные свалки и дорожные дефекты. Эти сценарии уже доказали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сейчас тиражируются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значение форума — он уникален.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где полеты и испытания ограничены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на Сахалине можно работать 24/7. Мы уверены, что,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ле форума останется серьезное практ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которое даст мощный импульс внедрению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откроет новые технические горизонты,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Василий Шпак.

Беспило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на Сахалине охватывают не только небо, но и море. Участники «Крыльев Сахалина» увидят гидроакустические станции,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морскими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ми решениями и сценариями их примен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запланированы такж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лет малой авиации, фестиваль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молодежи «Взлетай!» и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 гонками дронов. В другой части программы будут найдены решения для авиационной и морской безэкипажной логистики, ч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700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планирует принять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в этом году

О развитии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тчете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2025 году, выступая в облдуме.

—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оздать таки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не уезжала, а оставалась жить на островах. Выстраиваем с бизнес-партнерами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Определенные достижения есть. 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л опорным вузом «Газпрома». Единственн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то значит, что наша молодежь будет трудиться на самых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ах,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ведущи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и вузами создали 10 лабораторий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центров.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ей» открывается магистратура для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С «Газпромбанком» запущен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 в нефтегазовой сфере. Работает Передовая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один из проектов выиграл конкурс Российского научного фонда и получит 75 млн рублей на научные разработки. Вместе с Бама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создали первую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агистратуру по водород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В этом году запускается кафедра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совместно с индустриальным партнером — «АФК-Система».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Уже сдан комфорт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00 мес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чебных и лабораторных корпусов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идет по графику, сдача намечена на 2027 год.

Растет интерес абитуриентов: уже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университет выполняет план приема, а число бюджетных мест увеличивается на 25% ежегод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ведена компенсация половины стоимости первого года обучения для ребят, не прошедших «на бюджет».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университет готовится принять около 700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Развитие происходит и в сфере среднего профобразования. Создан первый кластер в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объединивший три техникума и два ведущих горнодоб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я. Формируется еще четыре кластера для таких отраслей, как нефтегаз, сервис и туризм, транспорт,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молодежи созд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не только в учебе. Ежегодно более 3 тысяч активистов студотрядов получают первый трудовой опыт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ктивизировалось движение КВН. Команда «Сделано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опала в Высшую лигу, и теперь ребята показывают на Первом канале.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губернатор остановился также на развит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2025 году открыли школы в жилых комплексах «Авангард» и «Горизонт» — создали 1810 мест в южной ч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 к началу эт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откроется долгожданная школа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и обновления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обновлению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территорий. Итоги работы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озв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в своем ежегодном отчете о 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Мы продолжаем систем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состояние подвальных помещений в надлежащем виде — без воды. В том числе проводить своевременные ремонты и опера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В 2025 году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около 1000 подвалов. Выстроили эту работу по аналогии с программами по ремонту дворов и подъезд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ошли более ста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сего с 2019 года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свыше тысячи дворов.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полнили в 650 дворах, а за семь лет — в 4600.

В регион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34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 В 2026 году, по плану, обновят еще 36 территорий. Продолжается озеленение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На фасадах домов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муралы. Сейчас и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164. Теперь они украшают не только областную центр, но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области.

За год в регионе заменили более 64,5 километра коммунальных сетей — тепловых, водопроводных и канализационных.

— Эта работа привела к снижению аварийности на коммунальных сетях. Например, за первый квартал 2026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аварий сократилось на 44%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 доб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Несмотря на снижение объемов ввода жиль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охранила лидерств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С 2021 по 2025 год расселили более 52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выше 24 тысяч человек улучшил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Площадь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сократилась вдвое. В 2026 году расселят еще 42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азвивается программа и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чти 1,5 тысячи квартир специалистам из разных отраслей. Летом 2026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ввод арендных квартир в Долинске. Всего совместно с ДОМ.РФ будет построена 1821 квартира.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ыдано более 5 тысяч льготных ипотечных кредитов.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молодых семей ввели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в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е. Ее получили 213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662 молодые семь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K-팝 댄스 무대로 꾸민 카자흐 세종학당 졸업식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15일 '봄학기
한국어 · 문화 강좌 수료식 및 졸업식' 개최



카자흐스탄 세종학당 졸업식 단체 사진 촬영.[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원장 구본철)은 5월 15일 문화원에서 K-팝 댄스와 전통무용 등의 무대로 축제를 방불케한 '2026 봄학기 한국어·문화 강좌 수료식 및 졸업식'을 개최했다.

문화원은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봄학기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지난 노력의 결과를 축하하는 의미로 수료증과 함께 최우수상, 우수상, 개근상 등을 시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8개 학기 동안 한국어 강좌를 성실히 듣고 수료한 학생들의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지난 한국어 강좌를 추

억하며 짧게 소감을 말한 후, BTS의 '졸업'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나눴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시상식 외에도 전통춤과 K-POP 댄스 등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특별 공연이 펼쳐져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만끽했다.

구본철 원장은 “수료식과 졸업식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 민원 검토 결과 직접 설명

고려인 동포단체(인천 함박마을),
중국동포단체(서울 대림동) 대상 후속 설명회 개최

민원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 직접 설명...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22일(금) 인천 함박마을에서 대한고려인협회,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동포총연합회를 대상으로 각각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를 열고,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민원과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와 조치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재외동포청과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지난 4월 30일(목)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국내 귀환 동포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를 직접 안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 귀환 동포들이 요청해온 29개의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수용기로 한 25건 안건 검토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주요 건의사항 별 검토 · 조치 사항 >

▶(동포청 사업 관련) ①동포단체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50%→20%) 경감, ②국내 체류 동포 청년 취업·직업훈련 지원(6월중 참가자 모집), ③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인천교통공사 재외동포특화역사 전시관<센트럴파크역> 협조 요청)

▶(국적, 비자 관련) ①국적회복 관련 절차 개선 및 정례적 민간 거버넌스 구축, ②지역특화 비자 일자리 상실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고용 보장 ③과도한 출입국 규제 및 사증발급 거부 문제 (총 3건 법무부 검토 내용 설명)

▶(복지 관련) ①러시아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등 제도개선, ②장애인 동포 장애 등록 지원 및 언어 지원 등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총 2건 보건복지부

(재외동포청 제공)

"Бах по столу": Как рекламный просчет Starbucks вызвал национальный гн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5)
Эти фотографии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 корейцам по учебникам истории. Выражение "Бах по столу"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копировало официальные пояснения полиции, которыми те сопроводили гибель студента Пак Чон Чхольа. Как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позже, он погиб в результате пыток, но это было подано, будто сам ушибся и случайно скончался.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лиции тогда и сказал: "Бах, ударился о стол и умер". Такое чудовищное совпадение по крайне чувствительной и болезненной теме, причем именно в годовщину восстания,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взрывную реакцию общества.

Скандал немедленно вспыхнул в самом Кванджу, где все эти подробности прекрасно помнят до сих пор. На власти обрушилась волна официальных заявлений, негодование переполнило соцсети и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акции протеста. У кофейен Starbucks начались пикеты. Люди стояли с плакатами у входов в кофейни, призывая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бойкоту. В акциях участвовали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гибших участников восст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ычные жители. "Я даже представить не мог, что с помощью чашки кофе можно издеваться над памятью погибших", - заявил один из родственников жертв событий 1980 года.

Протесты быстро вышли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ы Кванчжу и охватили всю Южную Корею. Представители Starbucks быстро поняли, чем это грозит.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три часа после появления рекламных объявлений все они были сняты, глава корей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сети был отправлен в отставку, компания опубликовала публичные извинения, однако было поздн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дет волна жесткого бойкота сети кофейен.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Starbucks был весьма популярен, по количеству точек страна находится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в мире, уступая лишь США и Китаю, а потому акции так заметны. Дошло до того, что оскорблять и высказывать свой гнев стали обычным сотрудникам кофейен, хотя те не имеют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екламной кампании.

Скандал быстро перерос из общественного в политический. Министр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Южной Кореи Юн Хо Чжун фактически объяви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ойкот Starbucks. Он заявил, ч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больше н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одукцию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легкомысленно относятся к истории демократии и превращают ее в коммерческий инструмент".

Этому примеру последова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другие. До этого продукция этой сети кофейен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 прежде всего в виде популярных подароч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для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акц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начало проверку закупок продукции Starbucks 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чет.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й стала реакция профсоюзов госслужащих.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фсою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объединяющий около 150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азослал по отделениям официальный призыв прекратить пользоваться сетью кофейен. В документе говорилось, что компания "искажила историю и использовала анти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маркетинг, унижающий память жертв". Профсоюзы отдельно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часто закупали сертификаты кофейни для подарков сотрудникам, но теперь намерены полностью отказаться от этой практики.

В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 большин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изданы распоряжения, где хотя напрямую не запрещается, но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овано"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кофейен. Волной негодования "накрывать" стало и тех, кто случайно выставил свои фотографии, где пьют кофе в Starbucks, либо видна символика кофейни.

К бойкоту подключились и курьеры. Профсоюз работников платформ доставки объявил об отказе доставлять заказы кофейни. В заявлении говорилось, ч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Кванчжу как маркетингов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не является просто ошибкой", 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либо незнание истории, либо сознательное пренебрежение ею. "Если в чашке кофе, которую мы доставляем каждый день, содержится подобное оскорбление истории, отказ от доставки -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аво работника, но и минимальный гражданский долг",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офсоюза.

Под давл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и банк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NH Nonghyup Bank заменил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оскандалившейся кофейни на купоны конкурентов. Аналогичные шаг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и другие банки. Национальн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Южной Кореи уже изменила призы сразу в девяти проводим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убрав оттуда Starbucks. Избирательная комиссия города Сечжон отказалась от закупки сертификатов сети.

До скандала Starbucks фактически занимал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ложение "главного подарочного бренда". По данным сервиса Giftishow Biz, более 3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корпоративных подарочных купонов, вручавшихся на День труда, приходились именно на эту кофейню.

Одновременно вспыхнул еще один конфликт - вокруг возврата денег с предоплаченных карт кофейни. Именно этого стали требовать многие пользователи, присоединившиеся к бойкоту. Согласно действующим правилам компании, вернуть остаток средств можно только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е менее 60 процентов суммы. Это вызвало волну раздражения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бойкота. В интернете широко разошлась история о покупателе, который приобрел шесть бананов по 1500 вон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формально выполнить условия возврата оставшихся денег.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уже требуют изменить правила и разрешить полный возврат средств без условий, если компания сама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общественный скандал.

На фоне происходящего начали появляться и первые финансовые последствия. По сообщения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продажи многих филиалов кофейни заметно упали. Сотрудники жалуются на стресс и тревогу,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им приходится сталкиваться с раздраженными клиентами и выслушивать все претензии.

Ситуация дошла и до парламента. Депутаты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внесли поправки к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событиях 18 м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е усиление наказания за унижение жертв восстания, 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оскорбительных высказываний о движении за демократию.

Сам Starbucks Korea и группа Shinsegae, через которую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управление сетью кофейен в Корее, пытаются реагировать, чтобы остудить волну народного гнева. Глава группы Чон Ён Чжин принес публичные извинения, заявив, что компания совершила "непростительную ошибку, легкомысленно отнесясь к жертвам людей, боровшихся за демократию". На днях было издано повторное официальное извинение в связи с чудовищной ошибкой.

Однако, судя по реакции общества, извинений оказалось недостаточно. Скандал продолжает разрастаться и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щается не просто в спор вокруг неудачной рекламы, а в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бойкотов последних лет в Южной Коре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бор продлится до 1 июля включительно, а уже 6 июля все собранные подарки волонтеры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 передадут в детские отде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региона.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акции могут вс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сахалинцы. Специальные боксы для сбо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ждут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йе 1-го этажа): улица Карла Маркса: дом № 24;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йе 1-го этажа): улица Пограничная: дом № 33;

Штаб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Единой России: улица Дзержинского: дом № 40/1. Важно знать! У детей в больничных палатах сильно ослаблен иммунитет, поэтому санитарные требования к подаркам очень строги. Все игрушки должны быть абсолютно новыми и находиться в закрытой заводской упаковке (мягкие б/у игрушки не принимают, так как они накапливают пыль и аллергены). Также запрещено приносить хрупкие, стеклянные или острые предметы.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комендуют отдавать предпочтение товарам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러시아 학교들에서 인공지능 과목 개설

새 학기부터 학생들이 컴퓨터 심화수업에서 인공지능을 배우게 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러시아 학교의 학생들은 컴퓨터 심화단계 수업으로 '인공지능(AI)'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러시아 계몽부 장관 세르게이 크라브초브가 언급했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컴퓨터 과목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대회에서 인공지능 방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져있었는데 올림피아드대회 별도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과목이 추가되어 참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이에 따라 계몽부는 2026년부터 2027년 학기 교육과정

에 새로운 과목으로서 '인공지능'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계몽부가 연방 학교 교과서 목록에 '인공지능 개론'교재를 추가하여 앞으로 학교 5학년 - 9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게 된다.

В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ах появится профиль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С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тему ИИ начнут изучать на углубленных уроках информатики.

С 1 сентября росси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начнут изучать профиль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на уроках информатики углубленного уровн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Сергей Кравцов в интервью РИА Новости.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ведомства, интерес к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заметили во врем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о информатике. В программу соревнований добавили отдельный профиль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и он быстро стал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После этого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ешило включить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шко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 2026/27 учебного года.

Ране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добавило учебники «Введение в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 федеральный перечень школьных пособий. Эти материал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учеников 5–9-х классов.

사할린주 동물원, 영장류의 발달을 위한 놀이자료 수집

사할린주 동물원이 영장류의 두뇌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원숭이를 위한 놀이판 제작에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지능이 높은 영장류에게는 지적인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원 직원들은 원숭이들에게 놀이판(busy board)을 제작해 주기로 했다. 다양한 도구를 지닌 특수 놀이판은 안전한 놀이형태로 영장류의 분별력과 소근육을 발달시킨다.

동물원 측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게 된 물건들이 재 활용될 수 있고, 동물들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놀이

판에 적합한 물품들은 다양한 잠금장치(자물쇠, 걸쇠, 걸고리류 등), 다양한 부속품이 달린 직물(단추와 스냅단추 및 다른 요소가 부착된 직물), 스위치와 콘센트, 방울, 고장난 가전제품(리모컨, 손전등을 비롯해 버려도 되는 물건들)이 필요하다. 물품 수집 활동은 6월 10일까지 진행하며, 동물원 관리실(제츠카야 거리,4a)로 적합한 물품들을 가져와 경비원에게 맡기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30-37-47)로 문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Игры разума: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парк собирает предметы для развития приматов

Сахалинцев попросили помочь в создании бизибордов для обезьян.

Сахалинскому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му парку нужна помощь в создании развивающей среды для приматов. Эти умные животные нуждаются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тимуляции, поэтому сотрудники зоопарка задумали соорудить для своих подопечных бизиборды — специальные стенды с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предметами,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приматам развивать сообразительность и мелкую моторику в безопасной игровой форме.

У в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нести вклад в благополучие животных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дать вторую жизнь вещам, которые уже не нужны вам. Вот какие предметы подойдут для бизибордов:

различные запорные устройства — замки, щеколды, шпингалеты, крючки;

текстильные изделия с разнообразной фурнитурой, например, кармашки с пуговицами, кнопками и другими элементами; выключатели и розетки; колокольчики;

неисправные бытовые приборы — пульты, фонарики и прочие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иначе были бы выброшен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можно до 10 июня. Просто принесите подходящие вещи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здание зоопарка (ул. Детская, 4а) и оставьте у охранника.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можно звонить по телефону 30-37-47.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PP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квин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PP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